

2022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및 참석자

1. 일시 : 2022. 1. 7. (금) 14:00
2. 장소 : 행정관 2층 215호 중회의실
3. 참석위원(총9명 중 8명)
 - 가. 교직원대표 : 위원장 임효창 기획처장, 정소연 학생·인재개발처장, 하성호 경영기획팀장
 - 나. 학생대표 : 추시연 총학생회장, 유상아 부총학생회장
 - 다. 외부전문가 : 김문규 회계사, 최애라 회계사
 - 라. 동문대표 : 최형심 총동창회장
4. 불참위원(1명)
 - 가. 학생대표 : 류수경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안건

1. 2021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사·의결
2. 2022학년도 자금예산(안) 및 등록금 책정(안) 심사·의결
3. 잉여금 처리(안) 심사·의결
4. 기타 안건

■ 내용

1. 2021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사·의결

경영기획팀장이 2021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06,878,929원 증가한 1,000,697,523,470원임을 설명하다.

○ 정문 앞 토지는 어느 쪽인가? 연간 임차료는?

- 출차 시 정문 왼쪽 일부분에 해당하며 연간 약 1,500만 원 정도 임차료를 납부한다.

○ 외부 기관에 시험 고사장 대여와 드라마 촬영 장소 대여 사용에 따른 유의미한 수입 증대가 있었는가? 또한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가?

- 2021학년도 현재 약 1.8억 원의 대여·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다. 학교 재정이 어려워 여러 지출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지출을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외국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증대 및 교내 유휴시설의 활용 등을 통한 수입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대여 사용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 공지를 통해 사전 양해를 구할 예정이며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

○ SWU자유인생학교는 어떠한 사업인가?

- 노원구청 주관의 평생교육활성 및 지역주민연계 사업으로 텃밭가꾸기, 도자공예체험 및 바름인성교육 등을 합숙하면서 진행한 사업이다.

위원장이 2021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2. 2022학년도 자금예산(안) 및 등록금 책정(안) 심사·의결

경영기획팀장이 2022학년도 자금예산(안)은 92,004,587,330 원으로 편성하고, 대학 입학금은 전년 대비 141,000원 인하한 176,000원, 대학 수업료(등록금)와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등록금)는 동결로 책정함을 설명하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이 추진되고 있는가?

- 현재 교직원 채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이 부분을 함께 고민 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숙사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손익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 2021학년도 추경 예산 추이 2021학년도 본예산 대비 약 7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동일하게 운영할 경우 2022학년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 기숙사에서 입사 학생들을 수용하지 않은 것인가?

- 방역 지침에 따라 수업의 대면·비대면 운영이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입사하는 비율이 좌우된다.

○ 기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는 있는가? 졸업생도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 학기별 운영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월별 입사 등의 운영 형태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정보공시 및 기숙사 수용률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졸업생들도 입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겠다.

○ 방학 중에는 단축근무 시행하고 있는데 급여의 조정이 있는가? 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별도의 안내 멘트가 필요하다고 본다.

- 급여의 조정은 없으며 공공요금 절감과 매년 임금동결에 따라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단축근무를 시행중이다. 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안내 멘트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 해외학생유치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가?

- 단기수강료 수입이 약 7.9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어교육센터의 수강생은 어느 국가의 학생들이인가?

- 베트남과 중국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일본 학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 SWELL 프로그램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다양한 영어공부 플랫폼이 많아졌고 합숙을 통한 영어 공부에 대한 수요가 줄어 폐지되었다.

○ 동문 중에서는 SWELL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데 영어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민간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수익 증대까지도 연계가 되므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법인전입금 증대를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한 법인의 자구 노력은 ?

- 법인은 현재 별도의 사업체가 없다. 수익 사업으로는 임대 사업뿐이며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학교에 전출해 주고 있다.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으며 약 3~4년 전부터 교계 대상 기부 모임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금 모금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선출된 이사장님과 연계를 통해 법인부담금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 등록금의존도가 높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은 낮은 편이다. 지속적으로 지출만 줄여 학교 재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 적립금은 언젠가는 고갈 될 것이다. 법인의 수익사업 증대가 필요하며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인부담금 증대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 학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학부모의 어려움이 많기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 2020학년도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학생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회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 2020학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지출 감소 예산과 정부 재정지원으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코로나19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21학년도에는 비대면 수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 비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만족은 53%, 불만은 16%, 보통은 30% 정도이다. 과반 이상은 현재의 비대면 수업 형태에 대하여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본다. 재정현황 상 계속 적자로 운영 되고 있으므로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

○ 학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안다. 등록금 동결되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학생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학생의 등록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한다.

- 구조적인 혁신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 유학생 유치 및 장소 대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출은 긴축 예산을 편성 하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부분이 인건

비이다. 이는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의 불이익 변경이다. 구조적인 혁신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노력 및 경상비성 예산 사용을 위한 적립금 변경 등이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방안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 위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외국인 학생이 많을 경우 환경 개선 등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려해 보겠다.

위원장이 2022학년도 자금예산(안) 및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3. 잉여금 처리(안) 심사·의결

경영기획팀장이 잉여금에 대해 설명하다. 잉여금처리에 관한 원칙은 명시 및 사고 이월 등 목적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립 또는 학생지원 경비로 사용하기로 함을 설명하다.

위원장이 잉여금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4. 기타 안건

○ 등록금이 단과대별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미술계열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 계열별 필요한 자원의 종류가 다르기에 차이가 날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책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혜택이 배분되고 있는가? 산정근거가 공개되어야 하지 않는가?

- 등록금 산정근거는 정보공시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 모든 대학의 등록금은 계열별로 실험·실습의 비중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계열별 등록금이 차등 책정되었다. 또한 실험·실습비 및 공간 배정도 계열별로 차등하여 배정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상정되었고 모두 동의해 주었다. 2차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상 2회 이상으로 되어있다. 모든 안건이 상정되었고 심사·의결되었지만 1차 회의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자가 1월 첫째 주에 진행되고 있다. 1월 1일부터 학생 위원 임기가 시작되어 자료 분석과 학우들의 의견 수렴에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2회 이상 개최 되고 개최 시기도 조정해 주길 요청한다.

- 2021년 12월 말에 예산 추계에 대한 총계가 나왔다. 향후 이사회의 재정분과위원회 및 이사회 심사·의결이 되어야 한다. 학교의 모든 심의 절차 일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므로 개최 시기의 조정은 어렵다. 예산의 운영과 관련한 의문 사항은 경영기획팀으로 문의하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모든 안건이 심사·의결 되었으므로 2차 회의 진행을 하더라도 다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면 된다. 추가적인 논의는 위원장, 학생위원과 경영기획팀장 및 실무자가 배석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한가?

- 심의 안건이 통과가 되었으므로 차기 회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록금심위위원회 형식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 규정 개정 시 1차에서 모든 안건이 심사·의결 되었을 경우에는 차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차 회의는 진행하지 않고 추가 논의는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며 이에 위원들이 동의하다.

2022년 1월 7일

위원장

임효창



위원

정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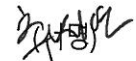
위원

하성호



위원

추시연



위원

유상아



위원

김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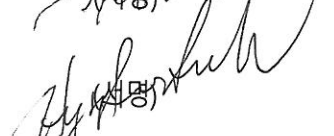
위원

최애라



위원

최형심



기록

차은호

